

글로벌 경제 위기 속 아프리카

- 중국, 일본, 인도의 진출현황 및 시사점 -



CONTENTS

목 차

요 약 / 1

I. 글로벌 경제위기와 아프리카 / 3

- | | |
|---|-----------------------|
| 3 | 1.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경제위기 현황 |
| 6 | 2. 아프리카 경제전망 |

II. 국가별 경제위기 현황 및 극복 노력 / 8

- | | |
|----|--------------------|
| 8 | 1. 주요 국가별 '09경제 전망 |
| 9 | 2. 나이지리아 |
| 10 | 3. 케냐 |
| 12 | 4. 남아프리카공화국 |

III. 중국, 일본, 인도의 진출동향 / 14

- | | |
|----|-------|
| 14 | 1. 중국 |
| 22 | 2. 일본 |
| 27 | 3. 인도 |

IV. 시사점 / 29

- | | |
|----|-------------------------|
| 29 | 1. 산업별 진출 유망분야 |
| 31 | 2. 자원개발 분야 진출 |
| 32 | 3. 제도, 금융 측면에서 정부 지원 확대 |

요 약

지난 10년간 고속 성장을 경험한 아프리카 경제가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2008년 하반기부터 경제성장률이 감소하고 있다.

세계적인 상품 수요 감소로 인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주요 수출품목인 1차 상품 가격이 하락하고 경상수지 적자가 늘어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외화 수입원이었던 해외 근로자의 본국 송금액과 선진국 ODA도 감소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의 금융산업은 선진국과의 연계성이 낮기 때문에 신용위기 가능성은 적지만 금융기관 수익률은 악화되고 있다. 경제위기로 인해 사회보장성 지출이 늘어나는데 반해 정부 수입은 감소하면서 재정 적자도 확대되고 있다.

2009년 아프리카 경제는 이러한 영향으로 0% 내외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2010년 이후 대외여건이 개선된다면 점진적인 회복을 보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지난 10년간의 고도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해 규제를 철폐하고 제도, 정책을 수립하는 등 내부적인 개혁을 꾸준히 수행해 왔다.

또한 지속적인 정치 개혁을 통해 정부의 거버넌스 능력이 확대되어 정치적인 안정성이 확보되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2010년 경제여건이 개선될 경우 아프리카 경제는 탄력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경제위기에도 중국, 일본, 인도의 아프리카 지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은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자원 확보를 목적으로 이른바 ‘앙골라 모델’이라 불리는 방식을 통해 아프리카가 필요로 하는 인프라와 중국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상호 교환하고 있다.

일본은 UN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목표로 아프리카에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경제규모나 정치적인 영향력이 큰 국가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종합상사가 선두에 서서 아프리카 자원개발에 나서고 있다. 인도는 자원개발권 확보와 남아프리카 중심의 진출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지리적 역사적으로 아프리카와의 밀접한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의 입장에서 아프리카의 전략적 중요성은 중국, 일본, 인도에 못지않다. 따라서 이들 국가의 접근 방식을 면밀히 검토하고 한국에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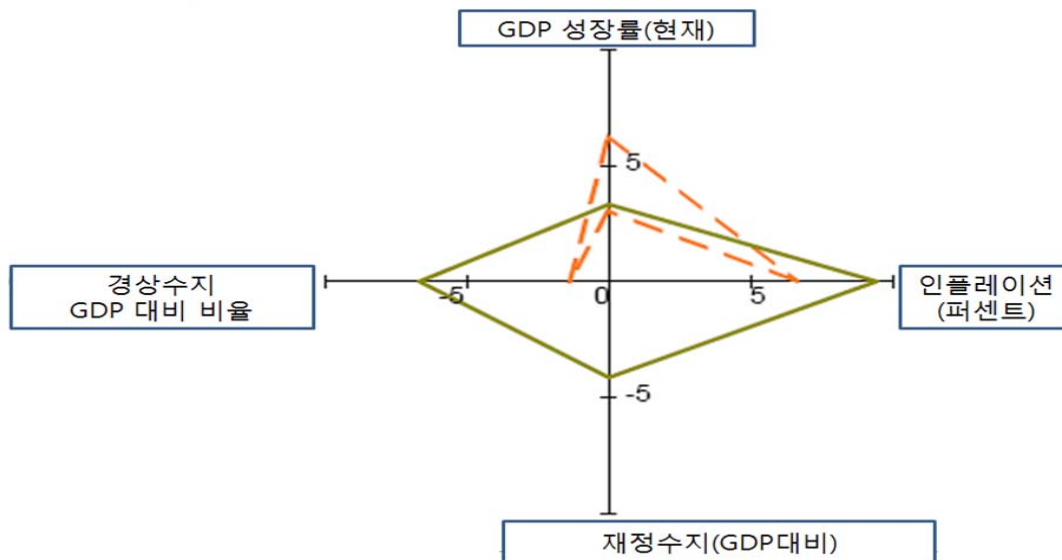
한국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IT, 철도, 전력 분야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경제발전 초기 단계에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수요가 큰 분야다. 자원 개발 분야의 경우 경제위기로 인해 개발비용이 많이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요 광물자원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제도, 금융 측면에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도 요구된다.

I. 글로벌 금융위기와 아프리카¹⁾ 경제

1.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경제위기 현황

- ✓ 지난 10년간 연평균 6%성장에서 '09년 성장률 0%내외로 하락
- ✓ 수출 감소 및 외화유입 감소로 경상수지 적자폭 증가
- ✓ 재정수지가 흑자에서 적자 전환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아프리카 경제상황 비교〉



자료원 : IMF, 09년 4월

주) 실선 : 금융위기 전 '09년 전망치, 직선: 금융위기 후 '09년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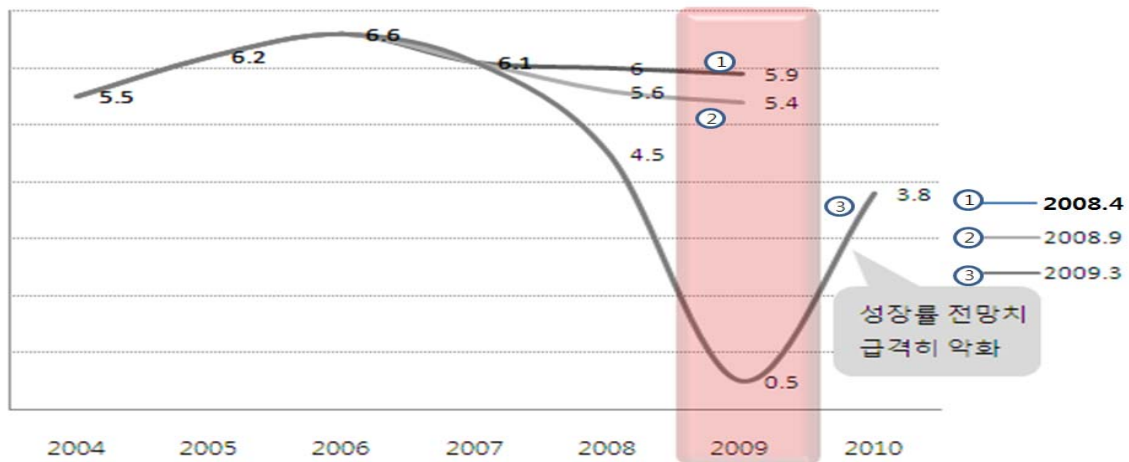
□ 경제성장률, 0% 내외 성장 전망

- 사하라이남(Sub-Sahara) 국가²⁾의 '09년 경제성장률은 지난 10년간 평균 성장률 (5.3%)의 1/10 수준인 0.5% 이하로 하락할 전망
- 세계 경제 성장률이 1% 감소할 경우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성장률은 0.5% 하락(IMF)

1) 중동 경제권인 북아프리카를 제외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Sub-Saharan Africa) 48개국을 지칭

2) '08년 기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GDP(US\$ 1조 500억)는 아프리카 전체 GDP(US\$ 1조 3540억)의 77%

〈전망시점별³⁾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경제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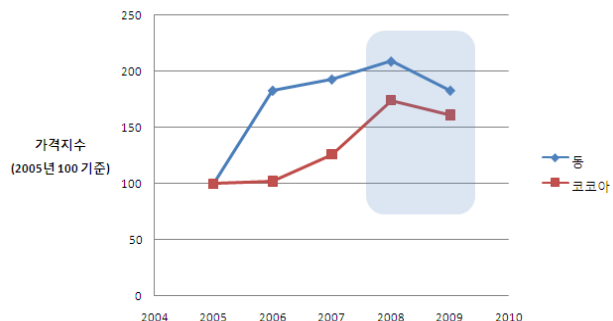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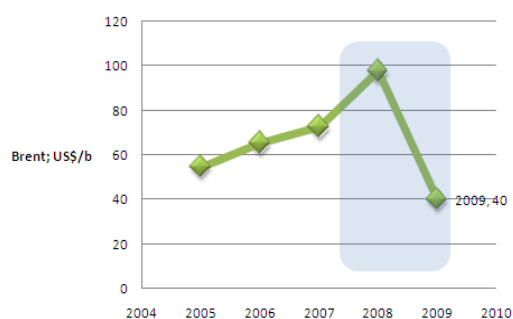


자료원 : EIU('09. 03.)

- '09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전망 시점별로 빠르게 하락
 - 5.9%('08. 4) → 5.4%('08. 9) → 0.5%('09. 3)
 - 국가별 성장률 전망치 : 나이지리아(2.7%), 남아공(-1.6%), 케냐(1.8%)

□ 1차 상품⁴⁾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출 감소

- 아프리카 산 원유가격의 기준이 되는 북해산 브렌트유 가격이 '08년 배럴 당 평균 97불에서 '09년 4월 50불 내외로 하락
- 주요 수출품인 동, 코코아 가격도 '08년을 정점으로 하락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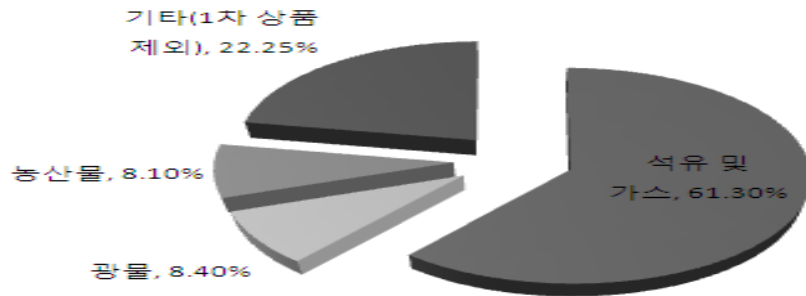
자료원 : EIU/IMF, '08/09년 종합

3) '08.3월부터 6개월 단위로 비교

4) 아프리카의 주요 자원 매장량(%는 세계 매장량 대비 아프리카 비중) : 우라늄 20%, 금 50%, 백금 90%

- 1차 상품 수출 비중이 80%에 달해 국제 원유 및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경상수지가 적자로 반전

〈1차 상품 수출 비중〉



자료원 : World Bank, 2008년

- 경상수지는 '08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GDP의 1% 흑자에서 '09년 6.5% 적자 전망

□ 외화유입 감소

- 해외근로자의 본국 송금액 감소
 - 비공식 송금액까지 포함하면 본국 송금액은 300억불 이상으로 '08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GDP의 2.9%에 해당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해외송금액의 75%가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미국 및 서유럽에서 유입(World Bank, '08. 11)
 - * 케냐는 해외 근로자의 본국 송금액이 '08년 10월 6,100만 불에서 '09년 1월 3,900만 불로 40% 이상 감소
- ODA 유입액 감소 및 아프리카 지역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
 - 선진국들의 금융위기 여파로 '09년 ODA 유입액은 '05~'07년 연평균 1,000억불 대비 20%이상 줄어들 전망 (Britain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 아프리카 법인을 보유한 외국계 금융기관이 투자 자본이나 아프리카 지역에서 창출한 이익을 본국으로 회수

□ 정부수입 감소와 사회보장성 지출 확대로 재정수지 적자

- 아프리카 국가들은 대부분 국영기업을 통해 자원을 수출하기 때문에 자원가격 하락은 정부수입 감소로 이어짐
- 아프리카 각국은 경제위기 해결을 위해 사회보장부문 지출 확대
 - '09년 정부 재정수지는 GDP 대비 2% 흑자에서 4% 적자로 반전될 전망 (IMF)

2. 아프리카 경제전망

□ '09년 경제 전망은 어둡지만 4분기 저점 통과 가능성

- 아프리카의 고속 성장을 주도한 수출, 해외송금, ODA가 모두 감소하는 추세로 이에 따라, 외환보유고도 감소 중
 - * '09년 외환보유고는 '08년 대비 남아공 100억불, 나이지리아 144억불 감소
- 주요 수출품목인 1차상품 가격 안정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지속 여부가 경제성장에 관건

□ 2010년 이후 부터는 회복 가능(3.8%) 전망

- 아프리카 경제성장은 과거 대부분 외부요인이 견인했으나 점차 내부 요인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
 - 대외원조 비중이 줄고, 민간 부문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경제 성장을 이끄는 주요한 원동력으로 등장했다고 평가(IMF)
-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점차 변모
 - '08년 기업환경개선 속도가 가장 빠른 상위 10개국 중 사하라이남 3개국 (세네갈, 부르키나 파소, 보츠와나)이 포함

- 모리셔스는 지속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해 아프리카 국가 중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평가(World Bank)
- 정부의 거버넌스 능력 향상으로 정치 부문이 점차 안정화
 - 상당수 국가에서 정치의 민주화 토대가 마련되어 가고 있고, 종족 간 유혈 분쟁과 쿠데타가 감소
 - 이제 아프리카도 경제발전을 할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 점차 확산
- 지난 10년간 고도성장의 경험을 통해 각국 정부는 규제 개혁과 기업 지원 제도 및 정책 도입이 빈곤에서 벗어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인식(World Bank)
 - 기업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바탕으로 외부 경제여건이 좋아진다면 탄력적으로 성장 가능
 - * 모잠비크와 탄자니아는 무역자유화, 효율적인 금융 시스템 정립 및 가격·환율 규제 완화를 통해 해외 투자를 촉진
 - * 아프리카는 인구증가율이 높고(2.4%) 인구 구성에서 청·장년층 비율이 높아 탄탄한 내수 기반이 있음

II. 국가별 경제위기 현황 및 극복 노력

1. 주요 국가별 '09경제 전망

- ✓ 나이지리아 : 자원 수출 의존도 높아 경제전망은 국제유가에 따라 유동적
 ✓ 케냐 : 관광산업 의존도 높음, 인플레 가능성 상존
 ✓ 남아프리카공화국 : 제조, 서비스업 발달, 심각한 내수시장 침체
 ※ '08년 기준 상기 3국 GDP는 사하라이남 48개국 전체 GDP의 약 48% 차지

□ 주요 경제지표

국가	성장률 전망 ('09)	GDP ('08)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내 GDP비중	인구 ('08)
나이지리아	2.7%	1,803억불	17.2%	1억5,000만
케냐	1.8%	344억불	3.4%	3,500만
남아공	-1.6%	2,840억불	27.8%	4,800만
소계	N/A	4,987억불	48.4%	2억 3,300만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0.5%	1조500억불	100%	8억

자료원 : EIU('09. 4)

〈주요 권역별 특징〉

거점국가	선정 사유
남아공	▪ 아프리카 최대의 경제대국 - 아프리카 GDP의 27% 점유 ▪ 남부 아프리카 물류 중심지 - 남부 아프리카 물동량의 80% 처리 ▪ 흑인계층 소득급증에 따라 소비자 구매력 급증
케냐	▪ 동아프리카 물류거점(뽀르타스 항) ▪ 동아프리카 경제공동체 중심국가 ▪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 - 선진국 시장에서 인지도 높음
나이지리아	▪ 아프리카 GDP의 9% 점유 ▪ 아프리카 인구대국(1.3억) - 구매력은 낮으나 잠재력 충분 ▪ 서부 아프리카 물류 거점

2. 나이지리아

- ✓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성장률 전망치 2%대로 하락
- ✓ 주요수출 품목인 자원가격 하락으로 경상수지 전망 부정적
- ✓ 고소득층의 높은 소비성향과 정부재정지출 확대가 유효수요 창출

□ 국제유가 하락 및 원유감산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 전망

- '07년 일산 240만 배럴에서 '09년 4월 현재 171만 배럴로 감소
 - OPEC의 원유감산 정책에 따라 원유 생산량 감소
 - 나이지 델타 해방운동(MEND)의 테러공격으로 원유생산 감소
 - ※ 원유가스업계 전문가들이 추정한 손실액은 최대 하루 1억 4,000만불
-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로 경상수지가 '08년 56억불 흑자에서 '09년 119억불 적자로 돌아설 전망
 - 원유 수출액은 '08년 768억불에서 '09년 319억불로 감소할 전망
 - 원유가스 산업은 GDP의 33%, 재정수입의 75%, 외화가득액의 95% 점유

□ 외국자본 이탈 및 환율 불안

- 외국 자본 이탈로 나이지리아 주가지수는 '08년 한해 50% 이상 하락하며 '09년 4월 28일 현재 21,460 기록
 - 65,075('08.4월) → 31,451('08.12월) → 21,460('09.4월)
- 외국자본 이탈과 원유 수출 급감으로 외환보유고가 감소하여 나이지리아 통화 나이라(Naira)는 20%이상 급락

□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재정지출 확대와 소비수요의 존재

- 나이지리아 국회는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안 보다 8% 늘어난 206억불 규모의 '09년 예산안을 승인
 - 정부 재정적자는 '08년 GDP 대비 2.7%(48억불)에서 '09년 GDP 대비 5.5% (65억불) 까지 늘어날 전망
 - 재정지출의 대부분은 전력, 통신 등 인프라 개발에 투자할 계획
 - * 2010년까지 10GW용량의 신규 가스화력발전소 15기 건설(200억불)
- 경기변동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부유층 700만명(전체인구 1억 4천만의 약 5%)을 중심으로 고가 소비재 수요가 높음
 - LG 전자는 가전제품(TV, PDP, LCD) 및 홈시어터 점유율 1위
 - 삼성전자는 핸드폰 시장에서 마켓 리더 위치 고수(점유율 2위)

3. 케냐

- ✓ 세계 경기 침체로 성장률 전망치 1%대로 하향 전망
- ✓ 가파른 환율 상승은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케냐 경제에 악영향
- ✓ 주요 외화수입원인 관광 산업도 정치 불안정으로 인해 침체

□ 원유 수입국으로 환율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가속화

- '08년 하반기 케냐 실링(Shilling)의 대 달러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외환 보유고 감소 등으로 28.3% 상승
- 특히 석유·가스 및 원자재 등의 수입의존도가 높아 수입 인플레이션에 취약한 구조

- '08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27.7%
- '09년 1~2월 월평균 23.5% (EIU)

□ 정치 불안과 유럽 경제위기로 인한 관광객 감소

- '07년 12월 대통령 선거 이후 발생한 소요로 인해 정치 불안이 증대되었고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
- 이로 인해 1천명 이상 사망, 35만명 이상 난민 발생
- GDP의 60%이상을 차지하는 관광서비스 분야 침체
- 관광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럽인 여행객 수 급감으로 '08년 한해 관광객 수는 전년대비 34% 감소
- 대선 이후 대규모 예약 취소 현상이 발생(TPS Eastern Africa 사)

□ 정부 재정상태 열악

- 외환보유고 감소와 성장률 하락에 따른 정부 수입감소 등으로 재정투입 여력이 타 국가에 비해 열악한 상황
- 재정적자폭 '08년 16.8억불에서 '09년 17.5억불로 늘어날 전망
-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적극적인 금리인하도 어려운 상황
- 국제금융 기관의 금융 지원으로 통신, 도로, 에너지 등 인프라 투자
- World Bank 2억5,000만불 지원, IMF에 단기성 차관 1억불 요청('09.3)

4. 남아프리카공화국

- ✓ 상대적으로 시장 개방정도가 높아 외부 경제영향에 취약
- ✓ 폐광 증가와 외국인 투자자금 회수로 실업률 상승
-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 수출 감소에 따른 내수시장 침체

- '09년 2월까지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5% 감소 (South African Revenue Service)
 - 주요 수출 품목인 석탄, 아연, 백금 등 주요 광물 자원 수출 28% 감소
- 제조업, 광업, 소매업 등 남아공 경제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분야가 경기 침체(recession)국면에 진입
 - '09년 1월 신차 판매가 25년 만에 처음으로 35%감소

☐ 광업 분야를 중심으로 실업률 상승

- 광업 분야와 연관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는 500만명 중 5만 명이 구조 조정 대상
 - 광업 분야는 GDP의 8%수준, 연관 산업 포함 시 GDP의 11.3%('07 남아공 광물에너지부 연차보고서)
- '09년 3월 현재 공식 실업률은 21.9%이지만 비공식 실업률이 35% 이상으로 추정
 - '09년 한해에만 구조조정으로 총 취업자 2,100만명의 약 1% 수준인 25만 명 실직 전망

- 광업 부문의 경기 부양을 위해 증세를 골자로 한 광물자원법⁵⁾ 발효를 2010년 3월로 연기

□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 지출 확대

- 중장기 경제발전 계획인 ASGISA(The Accelerated and Shared Growth Initiative for South Africa) 프로그램 지속 추진
 - 2010~2014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 6% 달성과 실업 및 빈곤 감소를 목표로 재정지출을 확대
 - Transnet(철도공사), Eskom(전력공사) 등 공공기업이 인프라투자 선도
 - * 남아공 정부는 Eskom에 대해 '09년 30억불을 지원하고 176억불 지급보증 계획
-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준비를 위한 경기장, 숙소, 도로 등 기반 시설 건설을 포함 사회간접자본 사업에 총 790억불 투자
-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는 '08년 1%에서 '09년 3.9%로 증가 전망
 - 광물자원 수출 감소로 인한 수익감소와 정부 재정지출 증대 원인

5) '08 Minerals and Petroleum Royalty Act

III. 중국, 일본, 인도의 아프리카 진출 동향

1. 중국

- ✓ 자원 개발권 확보를 위해 해외 원조를 발판으로 진출 확대
- ✓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고 장기적으로 자원을 확보
- ✓ 아프리카 민간부문 시장 진출을 정부가 적극 지원

□ 중국과 아프리카의 협력 관계

<자원>

- 원유의 대 중동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아프리카 원유개발 및 지분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
- 아프리카산 원유 도입 비중이 '03년 24.3%에서 '08년 30.8%로 증가
 - * 중국 수출입은행은 총 200억불 규모의 대 아프리카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개발권 확보에 집중 투자

〈중국의 자원 개발 투자 방식〉

✓ 자원개발 Asset Level뿐 아니라 회사 Level에도 투자
✓ Majority Equity 투자 선호
✓ 비상장·사기업 합작 투자 형태보다 상장 주식회사 선호
✓ Minority Partner에게 대한 투자 또는 대여 형태의 재무지원
✓ 국영기업 중심으로 투자 수행

자료원 : KPMG

* 1996년 대비 '08년 원유 수입 상위 7개국 중 아프리카 국가로부터 원유 수입 크게 증가

〈중국의 원유수입 상위 7개국(1996~2008)〉

(단위 : 만톤)

순위	1996	2000	'06	'08	'08년 수입량
1	인도네시아	오만	사우디	사우디	3,636
2	오만	앙골라	앙골라	앙골라	2,989
3	에멘	이란	이란	이란	2,132
4	이란	사우디	러시아	오만	1,458
5	앙골라	인도네시아	오만	러시아	1,163
6	베트남	에멘	콩고	수단	1,049
7	러시아	수단	적도기니	베네수엘라	646

자료원 : 중국해관통계, 주 : HS CODE(2709.0000기준)

<무역>

- 중국의 대 아프리카 교역 규모는 1990년대 중반 20억~30억 불에서 '08년에는 1,060억불 달성
- 수출 증가율은 '06년 전년대비 43%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 후 '08년까지 30~40%로 지속 증가
- 주요 수출품목은 유선전화, 오토바이, 면직물, 트럭, 신발류 등
- 아프리카 시장개척은 과거 경공업 제품에서 기계·전기제품으로 중심축이 이동 중이며 자동차도 주요 수출품 중 하나

〈최근 5년간 중국의 對아프리카 수출 추이〉

구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수출(억불)	138.2	186.8	266.9	370.3	508.4
증감율(%)	35.7	35.2	43.0	39.0	36.3

자료 : 중국 상무부 무역통계

<인적·문화교류>

- 중국은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교육, 문화,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서 교류 확대
 - '08년까지 '아프리카 인력개발 펀드'를 33% 증액하여 아프리카인 1만 명에게 직업 훈련 제공
 - 아프리카 각국의 엘리트들이 중국 명문대에서 공부하도록 학비를 지원하고 친 중국성향의 '차이나 커넥션'을 형성
 - 아프리카 주요국 대학 내에 공자연구소(Confucius School) 12개소를 설립해서 중국 문화 전파(마다가스카, 이집트, 나이지리아 등)

□ 중·아프리카 협력포럼(Forum on China-Africa Cooperation)

- 2000년 설립되어 '06년까지 3회 개최('09년 4회 개최 예정)
 - 중국은 '02년 아프리카에 18억 불의 원조를 제공하였으며, '03년까지 31개 국가 대상 14억 불의 부채 탕감
 - '06년에는 '05년 만기도래 부채를 탕감하고 50억불 상당의 양허성 차관과 수출 신용을 제공
 - '09년까지 아프리카 경제지원을 2배로 늘리기로 약속

<중국·아프리카 발전기금(China-Africa Development Fund)>

- '07년 6월 26일 국무원의 정식 허가를 거쳐 10억불 규모로 출범했으며 향후 기금 총액을 50억 불까지 확대 추진
- 중·아프리카 발전기금의 주요 투자분야
 -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농업, 제조업 분야
 - 아프리카 지역 인프라 건설(전력, 에너지, 교통, 통신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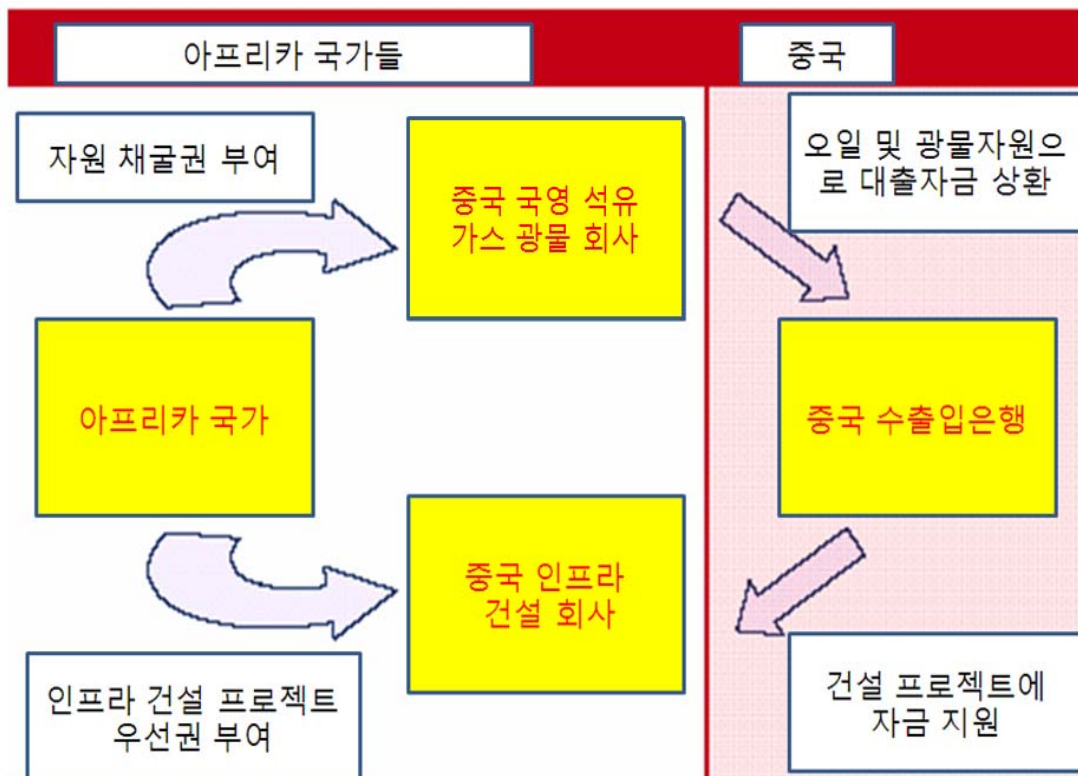
- '06년 제3회 중-아프리카 협력포럼에서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중-아프리카 실무협력 강화방침 및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8개항 발표
- 30억불 우대차관, 중국 상품 수입상에게 20억불 규모 신용대출 제공 등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8개항〉

· '05년 만기부채에 대한 추가탕감 · '09년까지 원조규모를 2배로 증액 · 30억 불의 우대차관 제공 · 20중국 상품 수입상에 대한 20억불 신용대출	· 50억불 규모의 중국-아프리카 발전 기금 조성 · 아프리카산 무관세 수입품목수 확대 · 아프리카에 경제무역지대 설치 · 아프리카인재 연수기회 확대
--	--

□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고 장기적으로 자원을 확보

- 인프라 투자로 자원개발권 획득
 - 중국 정부는 '08년 4월 콩고에 대해 총 90억불의 투자계획 발표
(자원개발 30억불, 인프라 건설 60억불)
 - 중국 수출입은행(China Ex-Im Bank)은 앙골라 방식(Angola Mode)으로 중국 기업을 지원
 - * 중국 국영 석유·가스·광물 회사는 아프리카 국가로부터 자원채굴권을 받고, 오일 및 광물자원으로 수출입은행에 대출자금 상환
 - * 중국 인프라 건설회사는 수출입은행으로부터 건설자금을 지원받고, 아프리카 국가의 인프라 구축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

〈앙골라 방식〉⁶⁾

○ 경제논리를 우선시 하는 접근 방식

- 중국의 원조는 대상국의 거버넌스 및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원조를 대가로 한 인권개선과 같은 국제원조 규범을 고려하지 않음⁷⁾

○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 지속

- 기존 10억불 규모의 아프리카 개발펀드를 30억불 규모로 증액하기로 결정 ('09. 3월)

6) 평균적으로 중국 수출입은행의 대출 조건은 연리3.6%, 유예기간 4년, 만기 12년으로 민간 상업은행의 대출조건보다 유리함.

7) 이는 '베이징 컨센서스'에 바탕을 둔 것으로 정치적 자유화를 강요하지 않으면서 시장 경제적인 요소를 최대한 도입하는 중국식 발전국가 모델임, 즉, 내정불간섭 원칙아래 권위주의체제를 인정하면서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것.

□ 정부가 아프리카 시장진출 적극 지원

- 자원 부국을 중심으로 경제개발을 지원하고 시장을 선점
 - 주로 차관 제공, 부채 탕감 등을 통해 구체화
 - '05년 UN정상회의에서 향후 3년간 100억불 규모의 원조성 차관 제공 약속
 - '07년~'09년에 아프리카 국가에 30억불의 원조성 차관 및 20억 불의 중국 상품 수입결제용 전대차관을 지원
- 후진타오 중국국가주석은 '09년 첫 해외순방으로 아프리카 4개국(말리, 세네갈, 탄자니아, 모리셔스)을 선택
 - 대 아프리카 원조를 확대하고 채무를 감면해주며 무역투자 확대와 실무적 협력 강화 약속

□ 중국의 대 수단 투자 성공 사례

- 국제 역학관계를 지렛대로 활용
 - 미국과 EU는 인권과 치안문제 및 경제재제 조치로 인해 수단 진출이 미미한 상황
 - 중국은 UN 안전보장 이사회의 다르푸르(Darfur) 사태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경제협력을 강화
- *'08년 6월 기준, 대 수단 투자액은 150억불로 세계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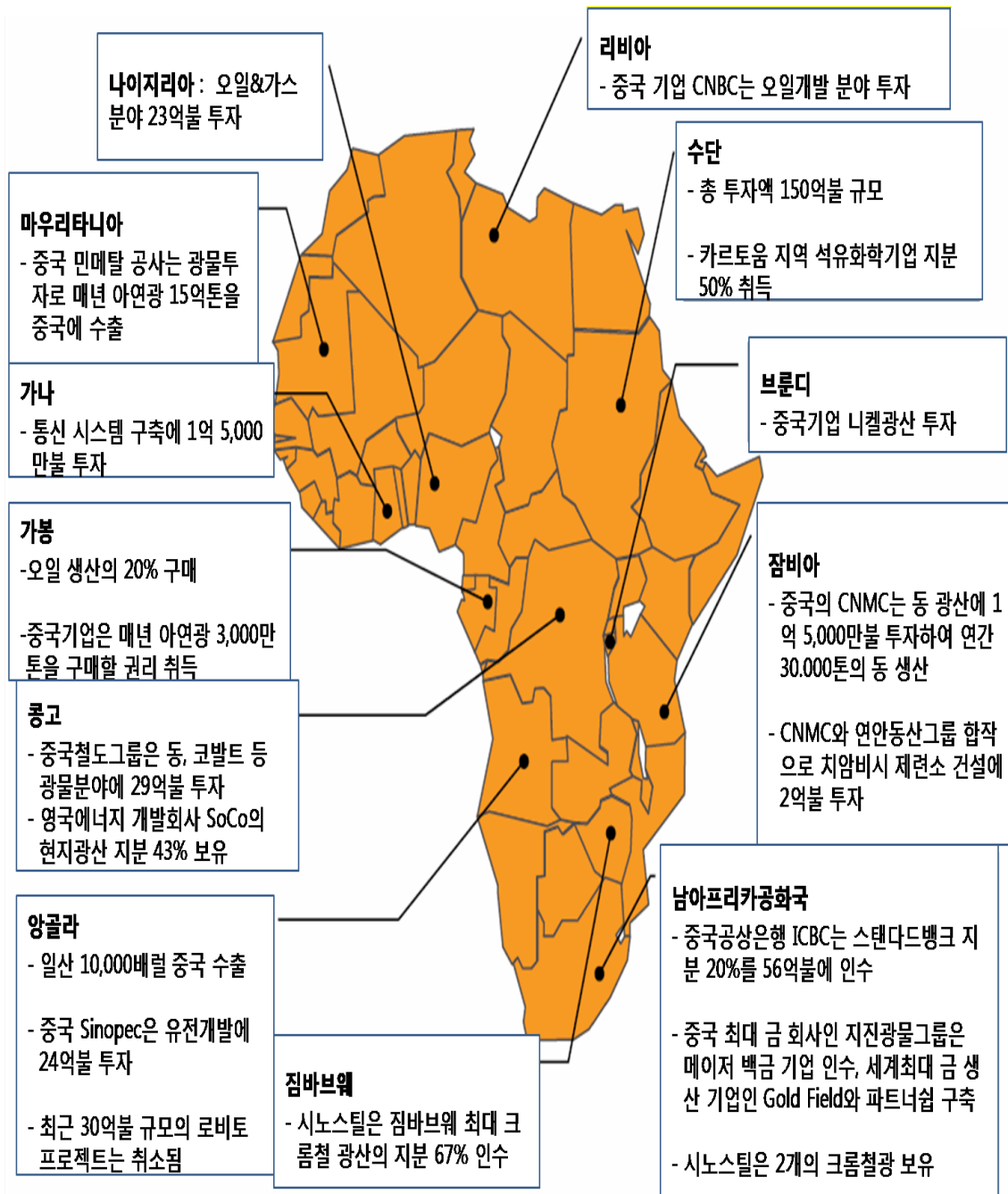
□ 아프리카 진출 기업 현황

- 국영기업 : 주로 자원 분야 진출을 통해 개발권 확보에 주력
 - CNPC(국영석유공사), CNOOC(중국해양석유총공사), Jisco(주취안제철소) 등
- 민간 대기업 : 건설, 통신, 자동차 등 분야에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진출해서 아프리카 시장을 잠식
 - 화웨이(통신), 치매이(자동차), 하이얼(가전) 등
- 분야별 진출기업

구 분	기 업	사업 내용
자원 개발	CNPC(국영석유공사)	· 수단의 석유개발 및 화학분야 50억불 투자 · 개발 원유 수송을 위한 파이프 건설에도 참가
	CNOOC (중국해양석유총공사)	· 케냐 정부로부터 6개의 유전 탐사권 확보 · 탐사 면적 11만 5천km ²
	Sino Steel	· 남아공 Samancor Chrom사와 합작 · 페로크롬 광산에 2억 3천만 불 투자
	Jisco(주취안제철소)	· 남아공 IFM사의 지분을 29% 인수 · 매년 12만톤의 페로크롬을 도입, 유통
인프라 구축	COVEC(건설)	· 남아공 수로건설 프로젝트 수주(7천만 불) · 저가 입찰전략에 대한 남아공 업체의 견제 심함
	Citic Acre(플랜트)	· 남아공 Mittal사가 발주한 1억 불 규모의 코크스 고로 건설 프로젝트 수주
교역 및 투자	화웨이(통신)	· 남아공에 블랙아프리카지역 본부 설립 · 이집트에서 차세대 무선통신 공급자로 선정
	중국공상은행(ICBC)	· 아프리카 최대은행인 Stand Bank의 지분 20% 인수(55억불 투자)
	치매이 자동차	· 아프리카 13개국에 딜러를 지정 · 녹다운 부품조립 거점을 1개소 설치
	TCL(휴대폰)	· 남아프리카에 공격적인 투자 · 중저가 휴대폰 시장에서 두각

자료원 : 요하네스버그 KBC

〈중국의 아프리카 투자 현황〉



자료원 : Public Private Infrastructure Advisory Facility, 2008

○ 중국의 아프리카 투자 현황

- 오일 가스 : 나이지리아, 리비아, 앙골라
- 광물 자원(동, 니켈, 백금 등) : 브룬디, 잠비아, 남아공

2. 일본

- ✓ UN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목표로 한 정치적 접근
- ✓ 아프리카 개발회의(TICAD)를 통해 장기적인 목표 제시 및 점진적 접근
- ✓ 경제규모나 정치적 영향력이 큰 이집트, 앙골라, 나이지리아에 집중

☐ 국제사회 지지기반 확대 목표

- UN 상임이사국 확보를 위해 아프리카 회원국들의 지지 필요
 - '05년 인도, 브라질, 독일과 함께 발의한 UN개혁안이 아프리카 국가들의 반대로 좌초(아프리카 53개국 의견 보류)

☐ 아프리카 개발회의(TICAD)

- 일본 주도의 아프리카 개발회의(TICAD : 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를 5년마다 일본에서 개최
- 「TICAD VI('08년)」 이후 일본정부의 아프리카 전략
 - '08년 5월에 개최된 TICAD VI에서 아프리카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제를 발굴하고 관련 원조정책을 규정
 - * 총 40억불 규모로 아프리카 「성장의 가속화」를 지원하고 일본의 대 아프리카 투자 증대, 자원을 바탕으로 한 경제발전 지원, 무역·투자 진흥 계획 제시

□ 거점국가를 중심으로 질적 접근 추구

- 경제규모가 크고 정치적 영향력이 큰 국가들을 대상으로 외교력 집중
 - 남아공, 케냐, 이집트, 알제리 등
 - *'08년 기준 대 아프리카 직접투자 9억불 중 4.7억불이 남아공에 집중
 - *'08년 7월 JBIC(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은 남아공 ESKOM사가 추진하는 통신망 확충 프로젝트(Nothern Grid Transmission Project)에 72억불 지원
- 개발원조(ODA)도 정치,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깊은 소수 국가에 집중
 - 이집트, 앙골라, 나이지리아 등
-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 분야 기술 제공
 - 양적인 접근으로는 중국을 추월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 농업, 위생 분야의 기술을 전파하고 파생수요를 창출
 - JICA(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는 품종개발과 경지확보를 통해 아프리카의 쌀 생산량을 10년 안에 현재의 2배인 28미터톤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지원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준수하며 이익을 창출하는 Win-Win 전략
 - 아프리카 지역 말라리아 확산을 막기 위해 나이지리아에 새로운 모기장 (Olyset net) 생산 공장 설립('08년 스미토모화학 CSR 리포트)
 - *나이지리아에 들어설 신규 공장은 향후 5년간 40만명의 말라리아 희생자를 구제하고 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 할 전망

□ 일본형 자원개발 투자 방식

-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재정과 기술을 지원하는 방식 선호

✓ 회사 Level이 아닌 Asset level에 투자
✓ Minority Equity 투자 선호
✓ 상장주식회사 형태보다 비상장, 사기업 합작 투자 선호
✓ Equity 미만의 off-take 가능한 자산에 대한 투자
✓ Operator 역할 수행하지 않음
✓ 민간 상사 중심으로 투자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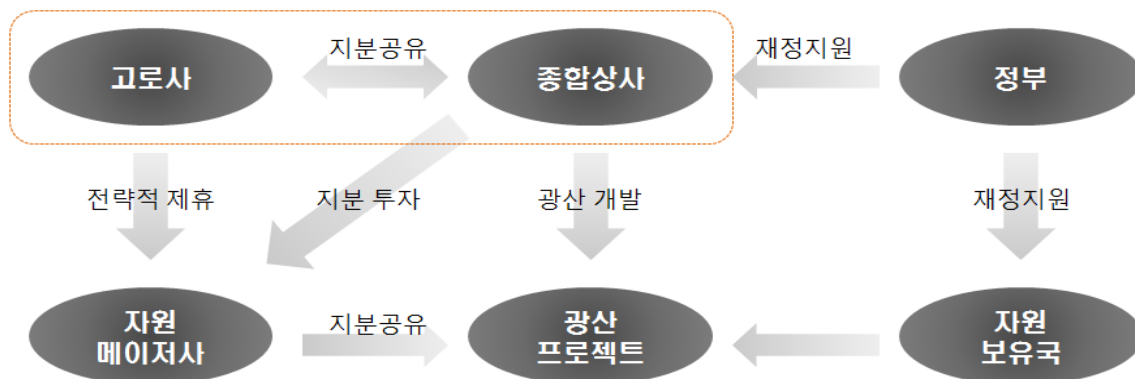
자료원 : KPMG

- 일본의 철강원료 확보 방식(예시)

- 종합상사와 고로사가 지분을 공유하고 정부는 재정지원과 자원 보유국을 상대로 한 자원외교를 통해 측면에서 지원

* 2015년에는 종합상사의 철 개발량 1억 1,700만톤 예상

〈일본 철강원료 확보 체제〉



- 중국과 비교

- 중국은 정부 주도로 인프라 건설 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자원을 선점하는 방식(앙골라 모드)
- 일본은 경제원조와 기술원조 등을 활용한 관·민 협조형 진출을 모색하면서 니켈, 크롬, 등 희귀 금속을 중심으로 틈새시장을 공략

○ 호황 대비 자원 투자 확대

- 일본 제2위 종합상사인 미쓰이 물산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자원가격 하락을 기회로 보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
- 단기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가능성이 있는 자원 분야에 투자하고 아프리카 상품시장 확대를 통해 손실은 보전

〈일본 기업의 아프리카 자원개발 사례〉

	주요 개발 상황
나이지리아	- LNG재팬, LNG 프로젝트 참여
리비아	- 신일본석유개발, 석유자원개발(JAPEX), 제국석유, 국제석유개발, 미쓰비시상사가 6광구 개발권을 낙찰받음('05.10월) - 미쓰이석유개발, INPEX 석유·천연가스 개발권 낙찰('06.12월) - 제국석유, 석유자원개발(JAPEX), 신일본석유개발사가 사무소 개설
앙골라	- 미쓰비시상사, 석유 탐사·생산·판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사가 취급하는 원유의 절반은 앙골라산(하루 2만 배럴) - INPEX와 미쓰이석유개발 등이 유전권익 보유
알제리	- 이토추상사, 제국석유가 천연가스전 권익(생산중) 보유
이집트	- 제국석유, 이집트의 South East July 광구에서 채굴작업중 - 소지쓰, Alamein 유전, Yidma 유전 지분 35% 취득('06.8월) - 아라비아석유, 해상광구에서 하루 생산량 4,900배럴의 원유 발견
나미비아	- 미쓰이물산, 석유·가스 탐사광구 개발권을 호주회사로 부터 취득
가봉	- 미쓰비시상사, 유전 권익(생산 중) 보유
콩고	- 제국석유, 유전 권익(생산중) 보유
적도기니	- 미쓰이물산, 마루베니상사가 LNG 프로젝트에 참여
남아프리카 공화국	- 미쓰비시상사, Hernic Ferrchrome Ltd.(크롬광) 에 51%출자 - 스미토모상사, 철광, 망간 등을 채굴하기 위해 oresteel Investments Ltd에 29% 지분 투자
마다가스카르	- 스미토모상사, 니켈광석을 채굴하기 위해 '암바토비 니켈 프로젝트에 27.5% 지분 투자(총 37억 달러, 캐나다 2사 45%, 한국광업진흥공사 27.5% 투자

자료원 : 미즈호 종합개발연구소, "원유획득을 위한 일본의 대 아프리카 정책의 제고"

□ 기타 분야별 진출 기업

구 분	기 업	사업 내용
자동차	도요타자동차	남아공 공장 생산능력을 22만대로 확대 예정
	닛산자동차	남아공에서 흑인계 신 중산층을 겨냥 저가 차량 판매에 주력
	혼다자동차	나이지리아에 오토바이 생산 공장을 설립
전 자	NEC	휴대폰 통신 인프라 장비 수요에 대응하여 보수 서비스체계 구축 예정
	샤프	전력 인프라가 미비한 아프리카 지역을 겨냥한 태양광 발전 시스템 개발
기 타	미쓰비시 중공업	남아공 차세대 원자력 개발 회사인 PBRM에 10% 출자하고 핵심 장비 수주에 주력
	스미모토 화학	나이지리아에 제2공장을 설립하고 모기장 생산량 확대 예정

3. 인도

- ✓ 자원개발권 확보와 남아프리카 중심의 진출 전략
- ✓ 지리적 역사적으로 아프리카와 밀접한 관계를 강조
- ✓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 아프리카와 지리적·정치적으로 밀접한 관계 유지

- 인도와 아프리카 간,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함
 - 아프리카 내 인도계 거주인은 약 240만명으로 주로 서비스업에 종사하며 흑인과 백인의 가교 역할 수행
 -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에서는 상권의 50% 이상을 인도인이 장악하고 있으며, 남아공 더반⁸⁾에서는 인도 IT 기업인 Ramco Systems가 시정부와계약을 체결해서 IT 서비스를 독점
- 중국과 아프리카의 교류확대에 대한 대응책 마련
 - '09년 2월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모리셔스 방문 및 대규모 투자(2억 6,000만불 원조) 약속을 인도양의 재해권 확보 사전 조치로 인식
 - 원유 공급의 90%이상이 인도양을 통해 수입되고 있어 잠수함과 미사일 발사 체제 구축 등 지배권 강화 노력
- 냉전종식 이후 관계 회복을 위한 포괄적인 협력 노력
 - 경제협력 강화, 대 테러리즘 공조, 군수지원, 기술지원,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등이 포함

8) 아프리카 거주 인도계 인구 총 280만명 중 130만명이 거주하는 최대 거주지역, 인도계 인구가 총 인구 35%

□ 자원확보와 내수시장 선점 노력

- 내수 시장이 발달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자원 확보를 위한 투자를 우선적으로 시행
 - 기존 투자 형태는 자원 확보와 인프라 역량강화를 병행하는 형태였으나 현재는 자원 확보 비중 증가
 - 타타그룹은 모잠비크의 리버스데일 뱅가 지역의 원유 탐사 및 개발권 지분의 35%를 획득('07. 11)
-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 제약산업, 통신업 등 아프리카 내수시장 공략을 위한 투자가 나타남
 - '08년 6월 인도의 4대 제약사인 지두스 카틸라는 남아공 제약사인 시마일라 제약사의 지분을 70% 인수하기로 발표

□ 인도-아프리카 정상회담(India-Africa Forum Summit)

- '08년 4월 아프리카 14개국 정상을 뉴델리로 초청 아프리카 투자 확대 방안 논의
 - 사전실무회의인 3월 India-Africa Project Partnership 2008에서 131개 프로젝트에 100억불 투자 검토
 - 인도는 '08년 예산에서 아프리카 지원 예산을 5억 루피에서 8억 루피(약 240억 원)로 증액

IV. 시사점

- ✓ IT, 철도, 전력 분야 중심의 선별적 접근
- ✓ 경제위기로 개발 비용이 하락한 자원개발 사업 추진
- ✓ 제도, 금융 측면에서 정부 지원이 필요

1. 산업별 진출 유망분야

□ IT·통신

- 인터넷 이용자수는 2,000년 이래 '08년까지 10배 급증, 2020년까지 아프리카 인구의 50%이상인 약 7억명이 인터넷 사용 전망(BMI)
 - 나이지리아, 남아공의 최신의 IT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얼리 어댑터(Early Adapter : 젊은 부유층) 공략
- 무선통신, 브로드밴드 등 우리나라의 우수한 IT 기술 및 운영 노하우를 수출 확대의 기회로 삼아야 함
 - 우정사업본부는 IT를 접목한 우편배달 시스템을 이집트에 수출, 중동·중앙아시아 등으로 수출중인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등도 아프리카 IT 선도국인 남아공, 알제리, 케냐 등으로의 수출기회 존재
 - * 남아공 정부는 2010년 월드컵에 대비하여 대대적인 IT인프라 투자 진행
 - * 일본의 NEC는 남아공에 새로운 거점을 확보하고, 동사의 휴대폰 통신 인프라 장비 수요에 대응한 보수 체제 구축중
- 전자정부 구축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 앙골라의 교통행정망 구축 사업과 탄자니아의 정부행정망 구축 사업에 총 1억1800만불의 대외협력기금(EDCF)을 지원

□ 철도

- 국별로 고속·도시철도, 수송철도 프로젝트들이 입안되고 있어 틈새 분야로 부상
 - 남아공은 '09년 광산개발에 따른 철광석 수송을 위한 시센-살다나(Sishen-Saldanha) 노선(총37억 달러 규모)과 트랜스-칼라하리(Trans-Kalahari) 노선 입찰 계획
 - 부룬디와 르완다 정부는 공동으로 2010년부터 5년간 다르에스 살람(Dar es Salaam)항에서 자국을 잇는 노선을 부설하기 위해 아프리카 개발은행(AfDB)과 함께 기금 조성

□ 전력인프라

- 대다수 국가가 전력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확보 어려움으로 민자발전소(IPP; Independent Power Plants) 비중 확대
 - 남아공 정부는 현재의 5% 미만에 불과한 남아공 내 IPP 비중을 향후 30% 까지 확대하는 정책 추진
- 10~50MW의 소규모 발전사업자를 위한 이동형 발전기 공급 유망
 - 인구밀도가 낮은 아프리카 지역특성상 송전탑 같은 전력인프라 없이도 전기 공급이 가능한 이동식 발전기 유망
- 친환경 발전 프로젝트 추진
 - 일본 샤프는 '08년 아프리카 개발회의 후,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계획 발표
 - 미쓰비시중공업은 남아공의 차세대 원자로 개발회사인 PBMR에 10%정도 출자하여 핵심 장비 수주에 주력

2. 자원개발 분야 진출

□ 현황

- 우리 기업들은 '08년 10월 국제 자원가격이 폭락하자 아프리카 광산투자를 위한 조사 출장이 거의 끊긴 상태
 - 잠비아의 동광들이 자원 가격 폭락으로 저가 매수가 가능한 상황, 실업난 해소가 최대 관건인 현지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도 기대 가능
 - *잠비아 통상산업부 장관은 '08. 11월 우리 자원조사단이 루사카를 방문했을 때 “코리안들은 이제 신속한 액션을 보여줄 때” 라고 언급
- 중국은 정부주도의 인프라건설 부문 지원을 강화로 자원 선점 전략, 일본은 경제원조와 기술원조 등을 활용한 관민협조형 진출 모색

□ 대응 방안

- 저가 광산 매입 또는 지분참여 방안을 지금부터 모색(구입자 마켓)
 - 아프리카 일부 생산 유전과 광산 가격도 20~30%이상 하락
 - 중국기업, 잠비아 코발트 회사 LCM인수 계획('09.2월), 구리제련소 운영, 철광석 개발에 26억 달러 투자 계획
 - 일본 석유천연가스광물자원기구(JOGMEC)은 남아공에 자회사 PGE-Ni-Cu를 설립, 백금 개발 착수('09.3월)
- 정부-자원공기업-민간개발회사 협력
 - 우리기업들은 자원개발 투자 정보 및 절차에 애로를 겪는 반면, 일본정부와 공기업은 주요국 지질조사에 대한 정보 민간기업에 제공

3. 제도, 금융 측면에서 정부 지원 확대

☐ 포괄적인 지원제도 마련

- 중국은 규제 완화, 금융 지원, 정보기술지원센터 설립 등을 통해 대 아프리카 투자기업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
 - '09년 31개 아프리카 국가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한 관세를 영세율로 하고 향후 적용범위를 확대할 예정
 - 중국은 연리3.6%의 저리(거치 4년, 만기 12년)로 차관 제공
 - 아프리카 주요국에 중국기업전용공단 조성도 확대할 예정

나이지리아 라이지 자유무역지구	2013년 내 39개 중국기업 유치, 6억불 투자 유치 목표
잠비아 중국 경제무역 합작지구	2010년 내 중국과 외자기업 60개, 8억불 투자 유치 목표
모리셔스 헨리 집단	모리셔스는 중국기업의 아프리카 교두보 역할

- 아프리카 엘리트들을 초청해 국내 우수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교육받도록 지원하고 국내 아프리카 문화포럼 및 네트워킹 확대

☐ 파이낸싱(PF) 등 정책금융 뒷받침 필요

-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진출기업에 대한 수출입은행 등 공적 기관의 프로젝트 PF지원 마련
- '06년 10월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수주에 성공한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사업의 경우 수출입은행이 PF를 진행

□ 글로벌 전략펀드 조성

- 정부와 민간이 손을 잡고 전략펀드를 조성하고 인수·합병(M&A)을 통해 기업경쟁력 강화
- 중국사례(중국공상은행)
 - '07년 아프리카 최대 은행인 남아공 스탠다드 은행 지분 20%를 인수, 최대 주주로 부상
 - 10억불 규모의 아프리카 M&A 펀드를 조성하여 금속, 원유, 천연가스 부문 프로젝트에 투자

2009년 KOTRA 발간자료목록

● Global Issue Report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9-001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기회시장 틈새시장	2009.1
09-002	오바마 정부의 경제·통상정책 방향과 시사점	2009.1
09-003	주요국 경기부양책 및 시사점	2009.2
09-004	美 경기부양법인 분석 및 활용전략	2009.2
09-005	러시아 CIS 수출환경변화와 진출확대방안	2009.3
09-006	한-칠레 FTA 5주년 성과와 시사점	2009.4
09-007	2009 美 USTR 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 - 주요내용 및 시사점 -	2009.4
09-008	미·중·일 그린뉴딜 정책	2009.4
09-009	금융위기속 CIS 진출 기업 및 바이어 동향	2009.4
09-010	글로벌 경제 위기 속 아프리카 - 중국, 일본, 인도의 진출현황 및 시사점 -	2009.4

● Global Business Report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9-001	2009년 세계 자동차시장 미리보기	2009.2
09-002	중동의 5대 비즈니스 유망 분야	2009.2
09-003	한-호주, 뉴질랜드 BT산업 협력방안	2009.3
09-004	새롭게 바뀌는 일본의 수입 인증제도	2009.3
09-005	불황기 중국시장, 소비트렌드를 읽어라	2009.3
09-006	일본 소비재 유망상품 및 수출방안	2009.3
09-007	새롭게 주목받는 美 흑인시장	2009.3
09-008	아프리카 전력시장 ON - 전력산업 현황과 진출 방안	2009.3
09-009	중국 내수의 新 블루오션, 유망 2,3선 도시 소비 포인트	2009.3
09-010	세계 전자산업 및 시장의 재편과 우리기업에의 기회	2009.4
09-011	동남아 CDM 시장현황과 기회	2009.4
09-012	중동에 펼쳐지는 친환경 녹색도시 - 그린산업현황과 기회	2009.4

● KOTRA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9-001	2009년 지역별 진출확대 전략	2009.1
09-002	해외 프로젝트 진출 연찬회	2009.1
09-003	해외 주요국 레저보트산업 조사	2009.1
09-004	2009년 지역별 수출유망상품	2009.2
09-005	2009 아세안 유망시장 진출전략	2009.2
09-006	2009 외국인 투자환경 만족도 조사	2009.3
09-007	러시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시장동향	2009.3
09-008	CEO・HR マネージャー向けの主要労働判例集 (2008年改訂版)	2009.3
09-009	중국 내수유통 경영실무 가이드	2009.4

● 설명회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9-001	2009년 세계시장진출전략 설명회	2009.1
09-002	2009년 세계시장진출전략 비즈니스 포럼	2009.1
09-003	유럽 재생에너지시장 진출설명회	2009.1
09-004	한미 부품소재 글로벌 파트너링 설명회 및 상담회	2009.1
09-005	TRADE KOREA 2009 해외시장개척 설명회 및 상담회	2009.2
09-006	TRADE KOREA 2009 해외 마케팅 핸드북	2009.2
09-007	2009 아세안 유망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2009.2
09-008	미-중-일 그린 비즈니스를 잡아라	2009.4
09-009	일본기업 부품소재 구매전략 설명회	2009.4
09-010	중국 내수시장을 제대로 뚫기 위한 성공조건과 공략방법	2009.4

작성자

◆ 요하네스버그 KBC	장충식 차장
◆ 나이로비 KBC	유성원 과장
◆ 라고스 KBC	심자용 과장
◆ 베이징 KBC	박한진 차장
◆ 도쿄 KBC	김경미 과장
◆ 뉴델리 KBC	이해인 과장
◆ 중아CIS팀	김지진, 이민철

Global Issue Report 09-010

글로벌 경제 위기 속 아프리카
- 중국, 일본, 인도의 진출현황 및 시사점 -

발 행 인 | 조 환 익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09년 4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우 137-749)
전 화 | 02) 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 2009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